

☐ 홈 > 뉴스 > 해운 > 정책

## COA 아시아지역 총회 성료

국내외 관계자 150여명 참석

[1573호] 2012년 06월 15일 (금) 10:09:33

곽용신 ✉ [chaser@maritimepress.com](mailto:chaser@maritimepress.com)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된 컨테이너오너협회(COA ; Container Owners Association) 아시아 총회가 국내외 컨테이너선사와 컨테이너 임대회사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2004년 컨테이너 선사와 컨테이너 리스업체, 컨테이너 제조사 등 전세계 컨테이너 오너들이 모여 만든 COA는 매년 상반기에는 아시아에서, 하반기에는 유럽에서 총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그동안 아시아 총회는 모두 중국 상해에서 개최됐으나 올해 처음으로 제10회 COA 총회가 한국 서울에서 개최되게 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 컨테이너 산업에 대한 주요 이슈들을 다루어졌고 특히 최근 미서안 항만에서 폭발사고로 이슈화되고 있는 냉동컨테이너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대책들이 제시됐다.

지난해 11월 냉동컨테이너 포럼을 발족시킨 바 있는 COA는 제10회 COA 총회에서 냉동컨테이너 폭발사고의 주요 원인인 불량 냉매 문제를 처음으로 종합해 발표했고 의왕CY에서 불량 냉매를 점

검하고 교체하는 시현회까지 개최했다.

냉동컨테이너 폭발사고 원인 및 대책에 대한 발표와 시현회를 참관하기 위해 미서안항운노조(ILWU)와 미국해운회사와 터미널 운영사 협의체인 PMA(Pacific Maritime Association)가 대표단 10여명이 방한해 COA 총회에 참석했다.

COA코리아 전병진 고문은 "ILWU와 PMA가 이번 총회에 참가함으로써 선사들이 자체적으로 냉동 컨테이너 안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 지난해 냉동 컨테이너 폭발사고 이후 미서안에 다량의 냉동컨테이너가 압류돼 있는데 이번 총회를 통해 이 문제가 잘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COA 사무국의 패트릭 히스(Patrick Hicks) 국장과 COA코리아 권오인 대표가 기조연설자로 나서 COA의 현재 활동 상황과 COA코리아에 대해 설명했다.

히스 국장은 COA는 선사와 리스회사 등이 주축으로 컨테이너 박스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규제, 동향분석, 사고원인과 대책 등을 논의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조직이라고 밝혔다.

그는 COA 산하에 컨테이너 데포, 플렉시탱크, 공급, 선급 및 검사 등 4개 분과위원회가 조직돼 있고 화물사고정보시스템(CINS), IICL 검사프로젝트, 컨테이너 검사기준(CIC) 개발, 바닥 대체제 및 방수페인트 가이드, 데포사전, 냉동컨테이너 포럼 등 8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라며 전세계 컨테이너 해운선사들과 컨테이너 리스회사, 물류회사 등 컨테이너 박스와 관련된 많은 이들이 COA활동에 주목해달라고 촉구했다.

권오인 대표는 COA코리아의 국내 활동과 한국해운항만시장에 대해 설명했다. 권 대표는 특히 한국 금융권에서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담보권을 인정하지 않아 금융조달을 통한 컨테이너 박스 신조나 매입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COA코리아의 노력으로 이문제가 해결됐다고 소개했다. 컨테이너 박스 담보권 문제는 지난 6월 11일 시행에 들어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가치를 인정받게돼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권 대표는 또 한국에는 2개의 메이저선사와 6개의 근해선사를 포함 총 14개의 컨테이너 선사가 활동하고 있고 한중일간 17개 카페리선사들도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이 보유한 컨테이너 박스는 전세계 박스의 약 6.4% 정도인 200만teu정도이며 한국항만에서 처리하고 있는 컨테이너 처리량만 연간 2100만teu에 달할 정도로 한국에서 컨테이너 박스는 매우 중요한 운송수단이라고 권 대표는 설명했다.

© 한국해운신문(<http://www.maritimepres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창닫기